

“내적인 증거를 보이라!”

요한복음 5장 39-40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 .

저에게 어떤 분이 자료로 보내 준 것입니다. TV에 나왔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나와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에서 사자성어 문제가 나왔습니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보기) 000가

문제를 푸는 어린이들의 답: 고음불가, 미친건가, 인간인가, 이럴수가...

그런데 서울 창일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의 답이 기가 막혔다.

“아빠인가”

그 어린이의 아빠에 대한 기억이 그 답을 만들어 내었다. 내게 아빠에 대한 기억은?

우리들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족적들이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핵심은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아니 설교라기보다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시는 장면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무리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도, 내적인 믿음의 확신과 증거를 보이지 않는 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즉,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은 잘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흥미로운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믿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왜일까요?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것이지요, 39절의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연구하는데, 성경에서 증거 하는 분이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질책이 무엇입니까? 겉모양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진정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경적 믿음이 아닌,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며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4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이 구절을 NIV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yet you refuse to come to me to have life.

저에게 이 'refuse'라는 말이 '의지적 거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자신들이 믿는 확신이 강했으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일로 인해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니,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지키며 살아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자'가 되버린 것이죠.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책 그레이엄이 쓴「그대, 영혼의 심장을 뛰게 하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막의 죄”

친구 하나가 수년 전에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떠났다. 친구는 그곳에서 관광 안내원인 아랍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친구가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 동안, 그는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아무도 저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가 수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관광 안내를 해왔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지 않았다. 그의 말을 듣고 친구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해 사과했다. 그러자 관광 안내원은 매우 흥미로운 말을 했다. “아, 저도 이해해요. 그게 바로 ‘사막의 죄’(the sin of the desert)라는 거죠.” “사막의 죄라뇨?” 친구는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사막의 죄는 사막에서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주지 않는 것이죠!”

나는 절대로 그런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다.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공급하신 영원한 생수를 마신 후에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즉시 동네로 뛰어 들어가 예수님을 알리기 시작했던 것처럼,

물의 근원이 있는 곳을 속히 알려 주고 싶다.

내면 깊은 곳에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자신을 위하여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예수를 믿으면 참 좋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 .”

그렇지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들에게 일어날 좋은 일들, 바로 그런 것들이 전도하는 이유가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온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나에게 일어날 좋은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생길 때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해 돌아올 대가를 바라기 때문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대가를 바랄 때,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에는 헌신이 따릅니다. 그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행동은 ‘헌신’이 없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평가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성경은 “자신의 의”라고 말을 합니다.

소위 우리가 가장 ‘재수 없어’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

같은 여자지만 남자 앞에서는 청순가련형으로 갑자기 변하는 여자들,

같은 학생이지만 선생님 앞에서만 갑자기 모범생이 되어 버리는 학생들,

같은 신앙인이지만 목사님 앞에서 신실해 지는 교인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이 있겠습니까?

김형국 목사가 쓴 [청년아 때가 왔다]라는 책에 보면 잘못된 믿음에 대한 견해를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 1: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얼핏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때문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믿음’이 선물이 아니라 ‘구원’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선물을 안 주셔놓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상한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 반응입니다.”

잘못된 믿음 2: 믿음은 내가 소원하는 바를 믿는 것이다.

우리를 종종 혼돈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행하시는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은 예수님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혈루병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그 여인을 향해 말씀 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가 아니라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이죠.

만일 우리의 믿음으로 병이 낫는다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병이 낫거나 낫지 않는 경우들이 ‘믿음의 세기’의 문제일까요?

혈루병 여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녀의 믿음으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생각해 보셨나요? “믿음을 사유화 한다!”

많은 크리스천들인 자신들이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축복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믿음’과 ‘어떤 확신’을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거룩한지, 아니면 세속적이고 기복적인지가 판가를 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 3: 의심하지 말고 세계 믿어야 한다.

믿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1장 23-24절의 말씀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돌이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믿음의 문제는 얼마나 세계 믿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론 전에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저주하신 사건이후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세계 믿어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도록 제대로 믿어라,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서 김형국 목사아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믿음을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잘못 먹었는지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살살 아픈데, 소화제를 먹지 않고 두통약을 먹으면서 꼭 나를 거라고 세계 믿는다면 배가 나올까요? 배가 아플 때는 그냥 소화제를 먹으면 됩니다. 두통약 먹으면서 “믿습니다!”하고 굳게 믿으면 나를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믿음은 세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세계 믿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도록 조작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버립니까? 아이가 아빠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데 “네 열심히 부족하다. 더 열심히 장난감을 원해야지”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열심이나 신뢰가 아니라 자녀의 필요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변화산 여섯 째 날을 시작하며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내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워진 심령이 무엇인지. . .

사랑과 희락이 무엇인지. . .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인지. . .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 지. . .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오두막]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연쇄 살인범에 의해 어린 딸이 희생된 한 남자의 괴로움을 이해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캠핑장에서 두 딸은 카누를 타고 있었고, 막내 딸 미시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뒤집히게 되고 자식을 구하러 물에 뛰어 든 순간 어린 딸은 연쇄 살인범에게 납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오두막에서 피 묻은 빨간 옷이 발견되고, 시신도 찾지 못한 채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그 죽인 범인에 대한 증오로 인해 괴로워하던 주인공 맥에게 어느 날 편지가 전달됩니다. “파파로부터” 이 책의 저자는 어디까지 사실이고 환상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말입니다.

주인공 맥은 주말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파파”의 편지를 따라, 딸이 살해된 오두막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관념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 대화하게 됩니다. 흑인 어머니의 모습을 한 하나님, 중동 남자로 보이는 예수님, 하늘하늘한 옷을 입은 성령님. . . 많은 대화를 통해 주인공은 자신이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이 얼마나 주관적인지. . . 자신이 살인범을 용서한다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은 그 살인범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공을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서하도록 노력하라고 말을 합니다.

죽은 딸 미시를 시켜주지 못한 죄책감으로 인해 자신도 죽으려 생각했지만, 남겨진 가족들에게 그것 또한 얼마나 큰 짐이 되는 것인지. . .

또한 물속에 빠진 자신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가 뛰어든 순간에 동생이 납치되고 살해 되었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미시의 언니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었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과 함께 아파하고 손에 동일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죄책감, 증오, 분노의 감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들. . .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질책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예배당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연구하지만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며,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지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답답한 것이 무엇이라면,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참으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신뢰하지 않으면, 일단 의심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믿기로 작정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을 목회자에게 맡기신 것도 아니고, 절기 예배 때인 성탄절이나, 부활절, 송구영신에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식이나 성찬식 때에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가까이 하거나, 절기 예배에 참석하면서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것 말고는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증거 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변화산 기간 동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직한 의심”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25절을 보세요.

“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드레가 지난 후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7절)

그리고는 도마가 진짜로 손을 넣어 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도마가 의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심이 그로 하여금 가장 강력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도마하면 자연스럽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한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도마를 의심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도마가 의심이 많다고 보다는 의심을 했었다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의심 안할 제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에 혼자 의심한 꼴이 되었고, 그 한 번의 의심이 도마하면 한국 사람에게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떠오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신앙 생활한 사람이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만나고 제자들도 만나며 신기해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도마를 만났습니다. 그 순간 입에서 ‘아! 의심 많은 도마’가 튀어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 도마가 울컥하며 말하길,

“그래, 나 딱 한번, 그 때 한번 의심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너는 의심 안했냐?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왜 자꾸 그 한번 가지고 나를 의심 많다고 하나? 내가 믿어도 너보다 백배는 더 주님을 믿었다.”

사실 도마는 그 후 주님을 전하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도마는 딱 한번 의심했습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의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심할 수 있으나, 그 의심으로 인해 내적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내적인 확신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적인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48절에 보면 앞에서 언급한 혈루병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분에게서 능력이 나와 아무도 고치지 못하던 질병을 고쳤던 사건이죠.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 여인의 이름도 신분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익명의 여인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수천 명의 사람이 앉아 있지만, 진정 내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입시를 앞두고 기도하던 중 아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독수리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독수리 문장을 한 학교가 어디지?
 그런데 그 학교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상치 않은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났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흐르고, 미국에서 학교에 입학원서를 내면서 나중에 깨닫게 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환상 중에 보았던 흰 독수리가 지금 다니게 된 학교의 문장 이었죠. . .)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되어진 일이 하나님의 손길이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났지?”라는 물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저런 역사가 일어났지?”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그 분에게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이며, 그 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분에게 가십시오!

이 세상에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역사 가운데서 누군가를 만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history'가 'His' and 'story' 즉 그 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분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시작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직한 의심과 고민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한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그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인 목사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이 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삶을 내가 control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음을 아는 순간 그 분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분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 왔던 거짓 믿음, 거짓 행동을 버리고 아주 솔직하게 그 분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적 믿음과 확신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적 증거를 보이라'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으신가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참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할 수 없었다”가 아니라 “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았던 그 어떤 이유도 우리의 의지적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가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을 믿으려고 작정하는 순간, 그 믿음을 보이는 순간, 그분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시는 일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기적의 역사가 아닐까요?